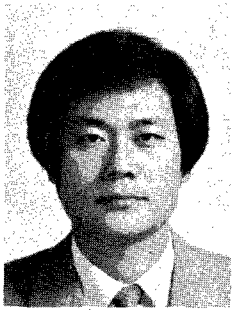


양계인들의 구심점이 되길 바라며.....



윤우한

고려산업(주)
대표사료 기술부

우리나라의 짧은 축산 연력 가운데 「월간 양계」 창간 19주년이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88년 서울올림픽, 서울장애자올림픽, 올해 풍년농사 등등... 하늘이 우리 국민에게만 은혜를 베풀듯 온누리에 결실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좋아만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는 우리 양계인들이 아니겠는가?

「월간 양계」 창간 19주년을 어느 누구 보다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도 가슴 한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는 것 같다. '난가 하락, 양계인들 타업종으로의 전환' 등의 어두운 소식들이 일년 내내 우리 양계인들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왜 우리 양계인들만이 이런 무거운 짐을 양 어깨에 둘러메고 살아야 하는가? 이는 농업의 부업적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였던 양계업이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를 통한 축산물의 수요가 창출되자 무분별한 입식과열로 수요공급과 일치점을 찾지 못한 데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양계인들 스스로가 단합하지 못한 데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심점을 통해서든 단합하여 이 단합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성숙하면서 기반이 튼튼해지면 우리 양계인들은 과도한 입식 경쟁에서 벗어나 생산비 절감 경쟁으로 스스로를 전환해 나갈 것으로 본다. 이는 어느 개인의 희생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며 당국의 정책 입안자부터 우리 양계인들 또한 유통부분 담당자까지 양계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양심적인 행동으로 단결하고, 이에 가세해 「월간 양계」에서는 양계업의 발전을 위한 판촉, 생산성 향상방안, 육가공, 합리적 경영방안, 공중위생 등을 폭넓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축산정책 방향을 주시 심층분석 보도하여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진로를 설정·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양계인들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양계업이라는 제한된 산업 속에서 미개척 분야를 찾아 개발하며 미비한 국가정책적 후원을 유도할 수 있는 힘있는 양계업자들의 대변자가 되어 전국의 양계인들이 「월간 양계」를 통하여 단결하고 호호하면서 권익을 찾을 수 있는 참다운 전문지가 되기를 바란다. **양계**